PEOPLE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선순환 복지 모델’ 착한 서구, 나눔이 일상된다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3000명 대상·3억 규모

기부문화 확산·골목상권 활성화 등 상생 정책 호응

광주 서구가 지역사회에 기부문화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나눔과 소비를 연결하는 대표 복지정책인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으로 총 3억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했다.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은 매월 일정 금액(3만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지역 자영업체 ‘착한가게’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돌봄이웃 1인당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서구만의 선순환형 복지 모델이다.

지급된 쿠폰은 서구 내 437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후원금이 다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지난해 서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명의 돌봄이웃에게 착한쿠폰을 지급했다.

올해는 수혜 대상을 3000명으로 확대해 3억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 중이다.

쿠폰은 모바일 문자(MMS) 형태로 발송되며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마트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참여 기반인 ‘착한가게’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 1245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35%(437개)가 착한쿠폰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일정 횟수 이상 기부를 지속한 가게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착한가게’ 현판을 부여하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돼 100%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이 같은 상생형 복지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혁신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서구의 ‘착한가게·착한쿠폰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상을 수상했다.

또 서구민이 뽑은 ‘2024년 서구 적극행정 및 혁신·협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쿠폰은 기부자와 수혜자,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구조로 지역경제와 복지를 함께 살리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서구가 지역사회에 기부문화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광주MBC ‘그가 죽었다’ 휴스턴국제영화제 금상

5·18 특집 다큐…‘체로키 파일’ 추적기 담아

광주MBC(사장 김낙곤)가 지난해 창사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이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기획 김철원, 연출 임지은, 촬영·편집 강성우 김환, 작가 김지연) 제58회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중편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44년 전, 그날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취재진의 추적기다.

광주MBC 취재진은 5·18의 판도라 상자로 여겨지는 일명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냈는데, 그는 1980년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 한국과장을 지냈던 로버트 리치 씨였다. 그는 아흔이 훌쩍 넘는 나이에도 44년 전 광주의 상황을 정확히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로버트 리치 씨로부터 5·18 관련 정보들을 누구에게 들었고 체로키 파일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했는지 등에 대한 핵심 진술을 확보해 다큐멘터리로 담아냈다.

휴스턴국제영화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매년 4월에 열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독립영화제다.

휴스턴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이어 북미 지역에서는 3번째로 오래됐고, 독립영화제로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코언 형제와 브라이언 드팔마,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등의 감독들이 영화제를 거쳐갔다.

영화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독립영화와 TV, 뉴미디어 작품까지 폭넓게 다루며,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수천 편의 작품이 출품된다. 올해 수상작들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월 5일 공개됐다.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는 지난해 18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14회 5·18언론상, 광주전남기자협회의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김다경 기자 alsqlsdl94@gwangnam.co.kr

강진군은 최근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제27회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27회 청자골어린이한마당잔치’ 성료

2000여명 참여…체험·먹거리마당 만끽

강진군은 최근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매직벌룬쇼를 시작으로 공연과 체험, 놀이, 먹거리, 이벤트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2000여명이 참여해 소방·경찰 체험, 도자기 목걸이 만들기, 핸드 페인팅, 아동권리 교육 등 교육과 놀이가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먹거리 마당에서는 주먹밥, 떡볶이, 인도·베트남 음식 등 다양한 간식이 제공돼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장 곳곳에는 미아 방지, 의료지원 등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준비됐다. 종합안내소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정보도 제공했다.

강진군은 아이들이 웃고 즐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단체와 협력해 체계적인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정양수 강진청소년지도위원회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됐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부스운영을 함께 해준 봉사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장기요양 종사자 역량 강화

‘헬시플레저·스킬마스터’ 프로그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헬시플레저·스킬마스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본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거점 광주체력인증센터, 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해 장기요양 종사자 34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BMI 측정과 분석, 다양한 운동법과 호흡법, 다제약물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올바른 수면관리, 스트레스 예방관리 교육 등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체력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의견으로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영희 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종사자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장기요양 수급자가 건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국가유공자 가정 환경 개선

포스코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치매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정을 찾아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환경개선 봉사활동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프렌즈재능봉사단은 금호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모씨(91) 집을 찾아 불안전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집안 내벽과 방문, 창문틀을 새로 도색해 밝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었다.

도배작업은 지난 2014년부터 300호 넘게 도배봉사를 해온 제철소 도배 재능봉사단이 함께 했다.

최창록 프렌즈 재능봉사단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국가유공자님들의 숭고한 뜻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이번 활동을 하게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국가유공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개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광주 서부경찰 녹색어머니’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8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발대식은 유공 회원 감사장 수여, 신임 회장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족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과 함께 서구 내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부음

△윤금례씨 별세, 정영팔(전 KBC광주방송 보도국장)씨 모친상= 8일 오전,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 특301호실, 발인 10일 낮 12시 062-227-4382

전화 062-370-7030 | 팩스 062-385-5400 | 이메일 gndn2018@naver.com

운세 (음력 4월 12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쥐
48년생 주위 여건이 만족시키지 못한다
60년생 말은 신중히 할 때
72년생 전가하려 하지 말고 역할에 충실하라
84년생 진행이 순조로워 돈이 불어 날 것
96년생 상대로부터 호감 얻는다

소
49년생 조심해야 일신의 안전이 보장된다
61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게된다
73년생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85년생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한다
97년생 조금 모자라긴 해도 양호한 편

호랑이
50년생 새것 들어오고 묵은것 나가는 시기
62년생 따로 따로 다뤄야 할 문제
74년생 문서 이동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86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돼야 할 시점
98년생 둘 다 내 것이 아니니 빨리 건네주라

토끼
51년생 헛소문으로 힘들지만 참으라
63년생 욕심을 버리면 성공한다
75년생 사업상의 많은 이익이 생길 것
87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생긴다
99년생 연인과 이별의 암시가 있다

용
52년생 사건에 휘말려 일을 놓치게 될 것
64년생 뇌물은 적은 것이라도 돌려주라
76년생 남쪽으로 확장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88년생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뱀
53년생 판단의 기로에 놓인다
65년생 귀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77년생 예상해 왔던 바대로 펼쳐지겠다
89년생 고기가 큰 바다로 나가는 때

말
54년생 분주하고 몸이 피곤할 것
66년생 밀고 나가면 편안할 것
78년생 의논하면 큰 도움이 될 것
90년생 지금 몸은 고달퍼도 보람은 있다

양
55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
67년생 거래에 운이 열리니 기회가 온다
79년생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91년생 과정이 너무 심하면 손해 보리라

원숭이
56년생 부부간 마찰 빚게 되니 주의하라
68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80년생 배우자의 관재구설 운을 주의
92년생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

닭
57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69년생 그대로 유지해나 가는 것이 용이
81년생 열성을 다 해야 할 시기
93년생 인연이 맺어지지를 않는다

개
58년생 속 좁은 생각을 버리라
70년생 서두는 필요가 없다
82년생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94년생 교제가 끊길 우려가 있으니 주의

돼지
59년생 배우자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라
71년생 문제없으리니 돈 근심하지 말것
83년생 상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낫다
95년생 친철를 베푸는 사람을 경계하라

풍수·역리문화원 | 광주 동구 충장로 2가 1-1 | blog.naver.com/soed9999 | 010-3629-3566